

보도자료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 바랍니다.	배포일시	2023. 7. 4(화)
담당	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철홍(☎051-861-9370), 주임 박민희(9376, 내선2036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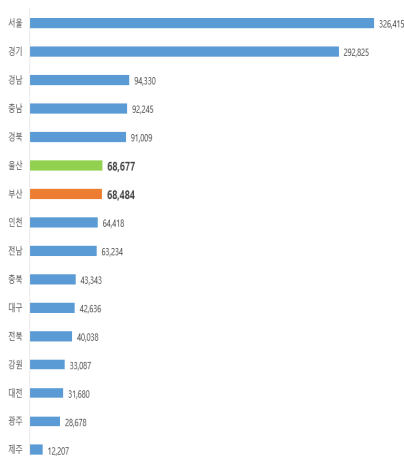
지난 10년간 부산·울산경제 꾸준한 성장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심화 - 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, 규제특례 적용,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절실 -

- 부산 고성장 기업 수 전국 3위
- 10년 전 보다 GRDP(지역내총생산) 44% 증가하여 전국 6위
- 10년 전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폭 1위
- 울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
- 10년 전 보다 GRDP(지역내총생산) 13% 증가하였으나, 증가율은 최하위
- 10년 전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폭 4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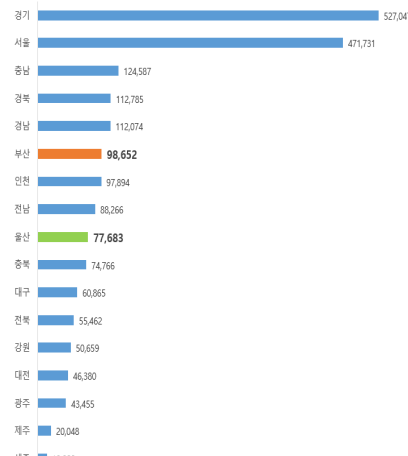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(부산울산회장 허현도)가 ‘21년~’22년 기준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, 지난 10년간 부산·울산은 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‘21년 기준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은 10년 전보다 44.1% 증가한 98조 6,520억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.
 - 울산의 지역내총생산은 77조6,83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(13.1%)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, 지역내총생산이 부산에 역전 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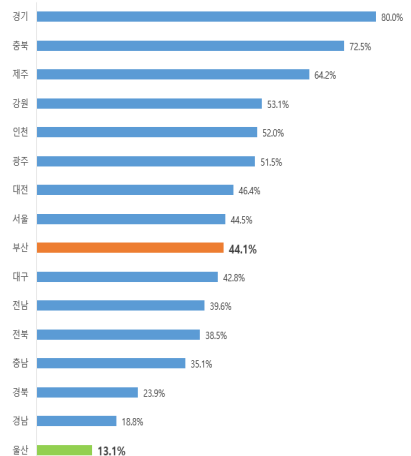
〈지역내총생산(‘11년)〉 단위 : 10억원



〈지역내총생산(‘21년)〉 단위 : 10억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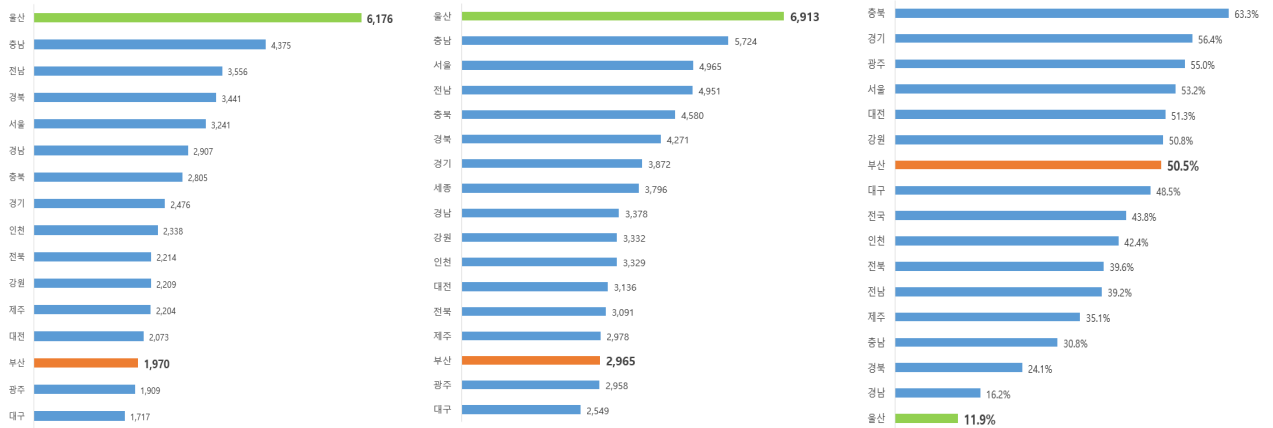
〈지역내총생산 증감율(‘11-’21)〉 단위 : %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지역소득」

- '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는 2,965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0.5%(약 1,000만원)가 증가했으나,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 전국 최하위 권을 기록했다.
- 울산의 1인당 GRDP는 6,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,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1.9%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.

〈1인당 지역내총생산('11년)〉 단위 : 만원 〈1인당 지역내총생산('21년)〉 단위 : 만원 〈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감율('11-'21)〉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지역소득」

- '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(15~64세)가 차지하는 비중은 68.7%로 10년 전 대비 감소폭(-6.3%p)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.3%p 감소하였고,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〈전국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비중 변화 ('12~'22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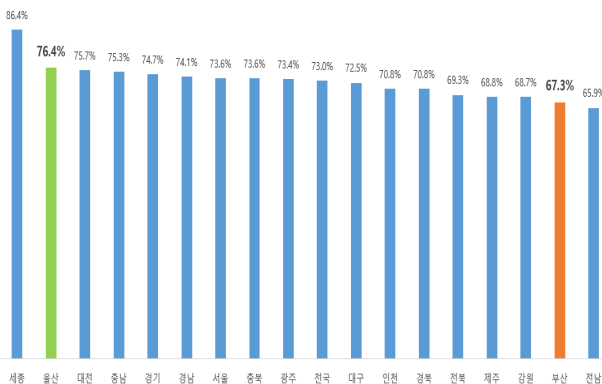
구분	'12년 (A)	'22년 (B)	증감(B-A)	구분	'12년 (A)	'22년 (B)	증감(B-A)
부산	75.0%	68.7%	-6.3%p	전북	68.4%	66.7%	-1.7%p
대구	74.4%	70.7%	-3.7%p	광주	73.5%	72.2%	-1.3%p
서울	76.7%	73.3%	-3.4%p	충북	71.0%	69.8%	-1.2%p
울산	76.1%	72.8%	-3.3%p	경기	74.1%	73.1%	-1.0%p
경북	69.6%	66.5%	-3.1%p	충남	69.5%	68.5%	-1.0%p
경남	71.6%	69.0%	-2.6%p	전남	65.2%	64.3%	-0.9%p
인천	75.4%	73.0%	-2.4%p	세종	70.6%	71.0%	+0.4%p
강원	69.8%	67.4%	-2.4%p	제주	69.2%	69.6%	+0.4%p
대전	74.7%	72.8%	-1.9%p				

※ 출처 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 재편·가공

□ '22년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67.3%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4.3% 증가했지만, 여전히 서울의 월평균 임금(455만 원)보다 20%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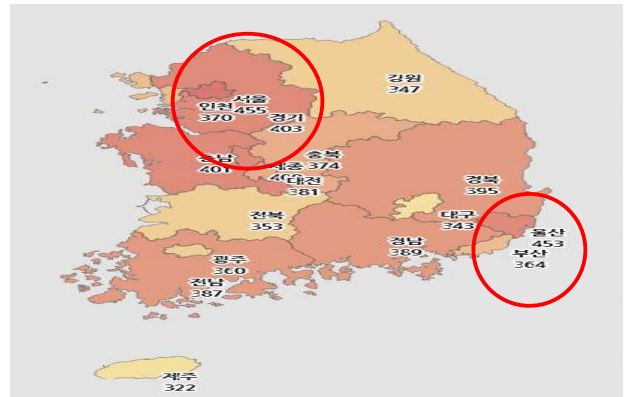
○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.4%로 세종(86.4%)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〈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(2022년)〉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재편·가공

〈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(2022년)〉 단위 : 만원

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 재편·가공

□ '21년 기준 부산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,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.6%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이 증가했지만, 전국 연구개발비의 약 80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.

○ 울산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,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.8% 증가하여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.

〈기업체 연구개발비 변화 (2011~2021년)〉

단위 : 십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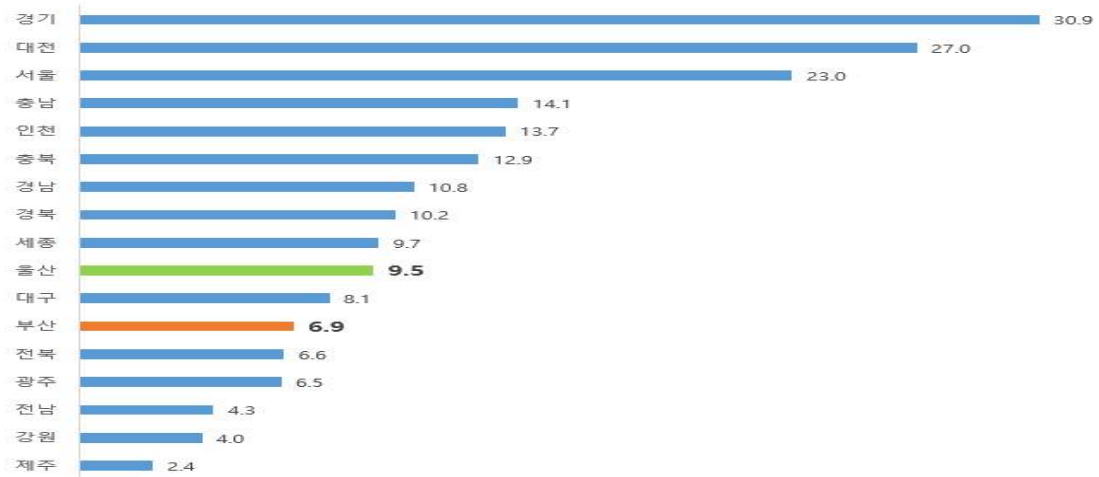
구분	2011년	2021년	증감율
경기	19,358	49,559	+156.0%
서울	6,109	11,774	+92.7%
대구	422	795	+88.4%
부산	474	856	+80.6%
대전	2,153	3,614	+67.9%
이차	1,698	2,634	+55.1%
울산	664	862	+29.8%
광주	413	412	-0.2%

※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연구개발활동조사」 재편·가공

- '21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&D 인력은 6.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, R&D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.
-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기업체 R&D 인력은 9.5명으로 부산보다는 소폭 많지만, 전국 평균(11.8명)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
〈경제활동인구 천명당 기업체 R&D인력(2021년)〉

단위 : 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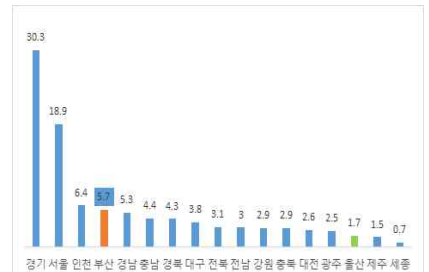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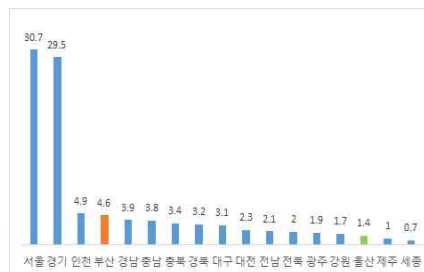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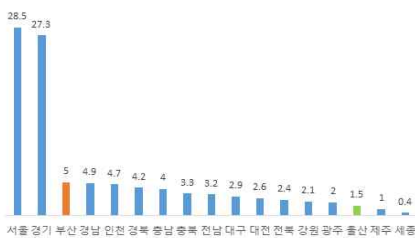
※ 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연구개발활동조사」 재편·가공

- 부산의 고성장기업* 및 가젤기업**과 창업기업 수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%대를 차지했지만, 서울,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다.
-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기업과 창업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%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 권에 머물렀다.

〈고성장 기업 수 비중('21)〉
단위 : %

〈가젤 기업 수 비중('21)〉
단위 : %

〈창업 기업 수 비중('22)〉
단위 : %



※ 출처 : 통계청, 「기업생멸행정통계」 및 중소벤처기업부, 「창업기업동향」 재편·가공

* 고성장기업 :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(①매출액, ②상용근로자, ③매출&상용근로자)이 연평균 20%이상 증가한 기업
 ** 가젤기업 :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이 연평균 20%이상 증가한 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기업

-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“현재 부산·울산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, 생산인구 유출,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.”라며, “지역 맞춤형 혁신인프라 지원, 지방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, 지역경제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